

“당신을 위해 달리는 흑마, 에보니입니다.”



칠흑을 닮은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 그리고 그 검은색 사이에 이질적이게 섞여있는 흰색. 그의 행동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면 오른쪽 눈의 시점이 미묘하게 맞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얼굴과 목 일부를 제외하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검은색으로 덮여 있다. 미묘하게 색계열과 천의 재질이 달라 간신히 구분할 수 있는 정도.

가벼운 소재의 망토는 방어나 보온에 큰 효과는 없어 보인다. 그저 검은색의 면적을 넓히기 위해 걸치고 다니는 듯.

보통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지만 인사를 나눌 때나 제 신원을 확실히 밝힐 때에는 선글라스를 벗어 맨얼굴을 보이곤 한다.

선글라스를 껴 있을 땐 어딘가 수상해 보이는 마피아같은 이미지라면 선글라스를 벗고 빙글 웃을 때엔 세련되게 블랙톤으로 옷을 빼입은 미남자의 이미지로 인상이 확 변한다. 이 탓에 왜 선글라스 따위를 쓰고 다니는 거냐며 잔소리를 하는 지인들도 많지만 고집스레 선글라스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본명】**

재클린 버트랜드 (Jacqueline Bertrand)

**【코드명】**

COLORIST

**【연령】**

26세

**【신장/체중】**

188cm / 70.7kg

**【국적】**

미국

**【소속】**

무소속

**【직업】**

정보상

**【성별】**

남성

## [능력]

### 색 조종

색 중에서도 검은색을 자유자재로 조종해 상대를 공격한다.  
자신의 신체와 가까운 색일수록 조종이 쉬워지므로 옷이나 신체 등에서 색을 뽑아서 사용한다.  
뽑아낸 색은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이거나 조형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약간의 감각을 공유할 수도 있는 모양.  
색을 끌어오는 것이 가능한 거리는 그때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본인을 기준으로 반경 **3m(직경 6m)** 정도.  
조종은 신체와 달아있다는 가정하에 거리/시간의 제한은 없다. 신체와 떨어져 있다면 최대 지속시간은 약 **3시간**이며 반경 **100m** 이상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능력이 풀리게 된다. 지속시간 또는 범위를 넘겨 제어력을 잃은 색은 원래대로 돌아오지 못하고 제어력을 잃게 된 장소를 검은색으로 물들이게 되기 때문에 색을 원래대로 돌리기 위해서는 의식적으로 되돌려야만 한다.  
방어보다 공격에 더욱 높은 활용도를 보이는데, 예리하고 가벼운 색의 특성 때문으로 추측된다. 쉽게 표현하자면 물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잘리거나 찢개지는 등 조형의 형태가 무너져도 순식간에 원상태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  
단단함이나 견고함과 거리가 먼 성질 탓에 방어를 시도한다고 해도 간신히 공격하나를 막는 정도가 최대. 재구성이 빠르다고는 해도 외부의 공격에 조형이 쉽게 무너지는 탓에 방어에는 적절치 못하다.  
방어에 약하다 보니 보통 색을 크게 퍼트려 시야를 막은 사이에 도망과 공격 사이에서 선택하는 편.

### 부작용

뽑아내 사용한 색을 원래대로 돌리지 못했을 경우, 색이 뽑힌 대상은 그 색을 잃게 된다. 색을 잃은 것이 무생물일 경우엔 그 고유의 색을 영영 잃고 일상에서 존재할 수 없는 오묘한 흰색으로만 존재하게 되며 색을 잃은 것이 생물일 경우에는 색이 빠져나간 곳의 신체능력이나 활동에 큰 손상을 입게 된다. 색을 제외하고 아무런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그동안 해본 적 없던 것을 조형하거나 복잡한 기계류를 조형하는 등 가용 범위 이상으로 능력을 사용하거나 **3시간** 이상 사용하기 시작하면 어지러움과 함께 구토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악화되어 간다. 심할 경우 정신을 잃을 수도 있으며 정신을 잃게 될 경우 그 즉시 색에 관한 모든 제어력이 끊겨 색또한 원래대로 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신체에서 색을 가져와 사용할 경우 해당하는 신체에 격한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생물에서 색을 뽑아내 사용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다.  
능력을 오래 사용할수록 능력의 폭주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평균 능력 사용시간은 **1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

### 조형

색을 뽑아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조형해 중·근거리용 무기를 만들어 사용한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능력활용으로, 주로 키만 한 거대한 낫을 조형하지만 상황에 따라 여러 개의 단검이나 어쩔 땐 총을 조형해 사용하기도 한다.

조형은 구조가 단순할수록, 그 구조를 정확히 알수록, 여러 번 자주 조형을 한 것일수록 부작용이 적고 내구도도 뛰어나다.

(구조에 대한 이유에서 낫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구조에 조금이라도 트러블이 생기면 색이 과부하를 이기지 못하고 그 상태로 터져 자신에게 피해를 주거나 능력이 폭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조형을 끝낸 색은 그 상태에서 또다시 조형할 수가 없으며 한번 원래 장소로 색을 되돌린 뒤 다시 조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 한번 만든 조형은 전투가 끝날 때까지 풀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

### 트랩

주로 검은색의 지형물이 있을 때 사용하는 능력활용.

바닥이나 벽에 미리 손이나 발 또는 조종 중인 색을 대 "활성화"시킨 뒤, 멀리 떨어진 곳에서 능력을 발동해 공격하는 방법. 색의 조종범위가 넓은 것에서 착안했다.

형태는 주로 날카로운 가시 또는 덫의 모습을 하는데, 날카로운 가시는 보다 섬세한 작업이 목적일 때, 덫은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적일 때 사용한다. 한번 신체와 접촉해 활성화를 시켰다고는 해도 일단 신체와 거리가 꽤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활용이다 보니 조형에서처럼 섬세한 작업은 불가능하다.

### 정찰/전달

조형한 색에 감각의 일부분을 담아 움직이는, 능력활용 중 최고의 난이도와 부작용을 보이는 활용방법.

감각을 담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조형이나 트랩과는 궤를 달리하기 때문에 몸과 정신 모두의 상태가 좋을 때만 가끔씩 사용한다.

이런 기능을 담은 색은 뱀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 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그저 길쭉하게 조형된 색이 뱀처럼 스르륵 움직이는 모습.

정찰에는 시각, 전달에는 목소리를 담아서 움직이며 담은 감각에 따라 눈 또는 목에 부담이 크게 온다. 심할 경우 일시적인 기능 상실(눈앞이 안 보이거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등)을 보일 수도 있다.

[관련 사건 파일]

**No.2979549** 화이트 저택 사건 (데일리 텔레그래프 기사 발췌)

고급스러운 검은빛을 자랑하던 버트랜드 가문 소유 저택이 하루아침에 흰색으로 변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다. 저녁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저택이 다음 날 아침에 보니 새하얗게 변해버린 것이다.

본 기자는 이에 대한 진상을 알아내기 위해 경찰을 대동, 저택의 집사를 찾아가 봤지만 "현재 가문에는 아무런 이상도 없고 저택도 멀쩡한 상태이다. 페인트 등의 테러로 일어난 일도 아니니 더 이상 저택에 관여하지 말고 돌아가달라"는 답만 얻을 수 있었다. 저택이 가지고 있던 오묘한 검은빛이 한순간에 모두 빠져나간 것처럼 흰색으로 변화한 것은 대체 누구의 짓일까. "색"을 다루는 능력이 유전된다는 버트랜드 가문이 소유한 저택의 색이 사라진 이 사건은 버트랜드 소속의 능력자가 제 능력을 과시하려 벌인 것이라는 이야기와 버트랜드 가문에 악의를 가진 어느 색 능력자의 테러행위라는 이야기가 서로 씨름하고 있다. 한편, 이 일이 다른 지역에까지 알려지며 저택은 화이트 저택이라고 불리기 시작함과 동시에 한 번쯤 지나가야 할 관광지로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고 한다.

화이트 저택은 미국 콜로라도주, ... (생략)

**No.3072156** 카밀라 굿맨과의 인터뷰 (버트랜드 가문의 집사, 비 능력자)

재클린님은 장차 모든 빛을 흡수하고 날아오를 거대한 새가 되실 분입니다. 저희 가문은 재클린님을 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분이 스스로의 날개로 날아오르기 전까지 모든 공격에서 비호하고 곁에서 보필할 것입니다.

재클린님만큼 저희 가문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분은 선대 분들 중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저희 가문의 자랑스러운 어둠이자 의지할 수 있는 날개입니다. 다른 형제 분들도 물론 뛰어나신 분이지만 재클린님의 위상에 비하자면 햇빛 아래 등불일 뿐이죠. 아아... 그분의 능력이 처음 발현되었을 때가 아직도 눈앞에 선명합니다. 당시 저는 아주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발현을 지켜보자마자 재클린님을 평생 따르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요, 전 각인이 된 겁니다. 세상의 빛을 처음 본 병아리처럼, 진정한 빛을 다루는 그분을 그 누가 거부할 수 있을까요.

**No.6513294** 에보니 정보상의 광고지

당신이 궁금한 것. 그 전부를 알려드립니다.

런던 메이스코트 거리에서 어둠 속을 달리는 흑마, 에보니를 찾아주십시오. 의뢰인에 대한 모든 정보는 비밀리에 부쳐지며 당신이 그것을 왜 원하시는지 그 이유 또한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무엇을 원하시든 모든 것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정보상, 에보니입니다.

-에보니 총책임자, 잭

## [관련 문서]

### 요기 라즈, 지하연합의 스카우터 리포트



색을 다루는 능력자로서 유서 깊은 버트랜드 가문에도 유례없는 수준급 실력의 능력자라니, 능력자와 비능력자 사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의 능력자가 아무런 사건도 없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세간에서의 평도 좋은 편인 그를 연합 측으로 데려오게 된다면 현재 그리 곱지만은 않은 능력자에 대한 시선을 보다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 브뤼노, 헬리오스의 스카우팅 노트



색, 그중에서도 검은색을 다루는 능력은 자주 그림자 능력자와 혼동되곤 하지만 사실 그림자 능력보다 훨씬 더 희귀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는 어릴 적부터 능력 활용 훈련을 지속해온 덕에 색을 제2의 신체처럼 움직이고 조형하는 것에 특화되어있어 여타 능력자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천재적일 정도의 능력활용 실력과 함께 그를 스카우트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버트랜드 가문까지. 그를 영입하는 데에 반대할 사람이 있을까?

## [성격]

### 자신감

청년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었다. 자기 확신이 뚜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어느 상황에 처하더라도 망설이지 않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책임을 떠맡고는 했다. 물론 아무 상황에서나 스스로 책임을 떠맡는 것은 아니었다. 청년은 자신이 믿는 것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꺼리지 않았을 뿐이지 위험을 즐기는 것은 아니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것을 얻으려면 무엇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지를 곧잘 파악하곤 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정진할 때 스스로의 힘에 부침을 느끼면서도 기세를 몰아 계속 앞으로 나아가 결국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곤 했다. 스스로를 믿고 지지하며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자신감에 꼭 차있었다.

근거 있는 자신감은 긍정적인 생각 방식과 당당함을 가져왔다. 청년은 자신의 견해가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거리낌 없이 이를 밝히고 제 생각을 어필하고는 했다. 자신의 생각을 강하게 확신하고 이야기해나가는 청년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든 제 쯤대를 곳곳이 지켜나가며 맞서고는 했다. 그렇다고 청년이 안하무인 하게 제 생각을 사람들에게 들이밀었다는 소리는 아니었다. 청년은 저에 대한 자신감이 확실한 이였고 제 생각이 틀렸다는 이유가 타당하다고 여겨졌을 때에는 곧바로 인정하고 굽힐 줄 아는 성격이었다. 제 생각을 확고히 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 성격은 주위의 호감을 사긴 충분했다.

### 완벽주의자

자신의 일에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은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더 좋아질 방법을 모색하곤 했다. 자신의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언제나 최선을 다해 일에 임했으며 청년 특유의 부지런함과 끈기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망설임 없이 해냈다. 특히 정보상의 일을 할 때 이런 면이 돋보였는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는 그만의 일정 기준에 달으려고 애쓰는 모습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더욱 신뢰하도록 했다.

마감시한 내에 일을 완벽하게 마치는 것을 좋아하던 그는 매 순간 일이 제대로 되는지를 이중으로 점검하곤 했으며 일에 지장이 생겼을 땐 모든 과정을 머릿속으로 되풀이해서 세부사항을 떠올리고 놓친 것을 잡아내 순식간에 오류를 수정해냈다. 이는 그만큼 청년의 기억력이 좋았으며 일의 세부사항을 일일이 머릿속으로 되새겨 오류를 잡아낼 정도로 실패나 포기예에 예민하다는 뜻이 되었다. 청년은 일을 스스로 시행하기보다는 계획을 세우고 지시하는 데에 더욱 훌륭한 능력을 보였다. 이는 심한 중압감 아래서도 덩달아 일을 해내고 공적인 일에는 개인감정을 배제하고 문제를 해결해내는 성격이 큰 몫을 했다. 그렇다고 청년이 임무 수행에 부족함을 보였나하면 답은 '그렇지 않다'였다. 세부사항에 집중하며 일에 차질이 있어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해내려 헌신하는 청년은 스트레스나 감정 따위에 제 선택을 내줄 정도로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 언제나 간결하면서도 중요한 이야기는 모두 담은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었으며 혹시나 자신이 실수를 하게 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고는 했다. 부하의 실수에는 자신의 실수에 비해 관대한 편이었지만 일정선을 넘긴 상대에게는 실망감을 그대로 드러내며 주요 임무에서 가차 없이 배제하곤 했다. 실수는 한두 번으로 끝나야지 그 이상으로 지속된다면 그건 그때부터 실수가 아닌 실력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 친절한

부드러운 목소리와 제스처는 지친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온화하고 기분 좋은 목소리로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으며 아무리 화가 난 상태여도 자신의 화를 다른 이들에게 풀지 않고 언제나 친절하고 태도를 보이는 그를 미워하는 이를 찾기란 힘들었다. 사람과 이야기할 때에는 다른 생각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상대에게 온전히 주의를 집중하며 그 어떤 실없는 이야기라도 잘 들어주었다. 여유가 아예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여유를 만들어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행위를 즐기곤 했다.

함부로 무례를 범하지 않았으며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투로 말을 건넸다.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재주와 몸에 배어있는 훌륭한 사교술은 주위 사람들이 그를 칭할 때 "매너가 좋다"는 수식어 하게끔 만들었다.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장소에서는 자연스럽게 조정자나 중재자 역할을 맡고는 했는데 이는 약속과 책무를 끝까지 완수해내는 그의 성정과 관대하고 예의 바르면서도 무리를 이끌어갈만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한편 굳이 강요하지는 않는 면 또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으리라.

상대의 말을 부러 끊지 않고 끝까지 듣는 것은 그가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신뢰한다는 표현 중 하나였다. 언제나 유쾌한 표정을 짓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는 사람 사귀는데에 매우 능숙한 면이 있었다.

### 여유로운

청년은 문제를 일으키기보단 뒤쪽에서 수습하는 일에 익숙했다. 감정적으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언제나 여유로운 모습을 유지해 신뢰감을 주었으며 차분하고 평온한 성품 덕에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붙드는 접착제 역할을 하곤 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한 대로 느긋하면서도 거침없이 움직이는 그는 사람들의 감정을 누그러뜨리는 안정제 역할을 하기도 했다.

자기감정을 기꺼이 드러내는 한편 쉬이 흥분하지 않아 어지간해서는 화내지 않는 것 또한 그의 장점이었다. 감정이 없다가보다는 자기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천성적으로 느긋한 것도 있었지만 감정의 절제를 중시하던 그의 집안 환경 또한 큰 역할을 했으리라. 언제나 생각하고 나서 행동을 시작했으며 보통 먼저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기다리고 지켜보다가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얹어 생각의 폭을 넓히거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주게 하는 것을 즐겼다. 종종 대다수의 의견과 충돌되는 의견을 스스로없이 내놓고는 했는데 모두의 의견에 반대를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격 때문이었다.

일의 우선순위를 잘 따져 느긋하게 움직이면서도 일의 진행은 막힘없었으며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일을 진행시키기도 했다. 참을성이 있고 너그러운 성격 덕에 다른 이들과 쉽게 어울렸으며 자신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곧잘 용서해주고는 했다. 물론, 자신에게 큰 피해가 오지 않았다는 전제하였지만.

## [기타]

버트랜드 가문

미국의 명망 높은 능력자 가문.

까마귀가 양 날개를 펴고 비상하는 모습의 문장을 가지고 있어 지역 내에선 까마귀라고 불리기도 한다. 색을 다루는 능력이 유전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그 때문인지 모든 색을 합친 검은색을 가장 우상시하는 경향이 있다.

능력자로서 주위, 나아가 세상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가문 전체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

덕분에 세간에서의 평이 좋아 2차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위에서 관촬냐는 걱정을 듣기도 했다. 후계자 후보는 5~7세가량에 저택의 일원(사용인 포함)이 모두 모인 장소에서 능력을 보이는 가풍이 있다.

이는 어려서부터 능력의 발현을 위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이기도 했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여 미리 '제편'을 만들어 후의 후계자 싸움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가문의 장자로 후계자 1순위였으며 현재 당당하게 후계자의 자리에 올라있다. 후계자를 공표 받자마자 런던으로 건너갔으나 미리 용인된 사항이었는지 가문 내에서도 별다른 잡음이 없다.

아무리 후계자로 확정이 되었다고 해도 아직 상관관계는 가문이 더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종종 지시사항을 받기도 하는 모양.

## 정보상 "에보니"

뒷골목을 주 무대로 활동 중이지만 일반인들에게도 알음알음 이름이 알려지고 있다.

흑마의 문장을 사용하고 있어 골목 내에서는 흑마라는 은어로 언급이 되고 있다.

소수 정예로 유지되고 있는 덕에 여타 정보상보다 의뢰비가 더 나가는 편이나 정보의 질과 성공률 자체가 급이 다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불만이 나온 적은 없다.

보수만 적당하다면 웬만한 의뢰는 모두 받아들이는 것으로 유명하며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더욱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정보상이라고 명명되어있긴 하지만 사실 정보 이외에 다른 의뢰도 받아들이긴 하는 모양. 단, 추가금이 꽤 붙는다고.

재클린은 에보니의 설립자이자 총책임자로, 폴네임 대신 잭이라는 애칭으로 활동 중이다. 가문으로서의 자신과 에보니 책임자로서의 자신을 구분함과 동시에 가문의 도움 없이 스스로 세우고 발전시킨 에보니와 가문이 접촉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듯하다.

## 약시

원래 시력은 평균 이상으로 약 1.5 정도지만 본인 시점 왼쪽 눈(흰 눈동자)의 시력은 약 0.6 정도로 오른쪽 눈에 비해 극도로 낮다.

건물이나 차 등 커다란 사물은 잘 구분하지만 사람의 얼굴이나 책글씨 등의 복잡하고 섬세한 것들은 눈앞에 가져다 대야 간신히 보이는 정도. 안경을 낀 상태인 교정 시력또한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책을 읽거나 서류작업을 할 때에는 아예 왼쪽 눈을 감고 활동하고는 한다. 사람을 대면할 때에는 선글라스로 눈을 가린 후 표정을 살필 때에만 왼쪽 눈을 감았다 뜨며 이야기한다. 몇 년간 지속된 물음과 답변에 꽤 질린 듯.

## 그 외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함부로 반말을 사용하지 않는다. 언제나 일정선을 지키며 실수로라도 그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해요체의 부드러운 존댓말을 사용한다.

양 눈썹의 끝에 2개씩 스크래치를 냈다. 나름의 멋인 듯 보인다.

본인 시점 왼쪽 눈썹의 스크래치 위에 검은색 피어스를 하고 있다. 멀리서 보면 점 같기도 한 동그란 모양의 피어스.

실내에서도 선글라스와 장갑을 잘 벗지 않는다. 능력 탓이라는 설과 결벽증이 있어서라는 설이 존재하지만 직접 이유를 밝힌 적이 없어 그저 추측으로만 남아있다.

### 【소지품】

작은 가방(검은 잉크병 2개)

손안에 들어오는 사이즈의 검은 잉크가 담긴 원통형 유리병. 일반적인 잉크병의 모습이라기보단 화장품 용기에 가까워 보이는 외관.

허리벨트의 뒷부분에 달려있는 작은 가방에 들어있다.

명함 봉치

이름과 전화번호, 에보니의 주소가 적혀있는 검은색의 명함. 뒷면에는 "당신이 그 무엇을 원하시든 모든 것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정보상, 에보니"라고 짧은 문장이 적혀있다.

### 【스탯】

체력 ★★★★★

지능 ★★★★★

공격력 ★★★★★

방어력 ★☆☆☆☆

정신력 ★★★★★(+1)

### 【포지션】

딜러

---

## 【비공개 프로필】

### 【비밀설정】

버트랜드 가문은 세간에 알려진 평과 달리 능력자 우월주의와 엘리트 의식에 휩싸인 집단이었다.

혈계 직속을 포함해 방계, 사용인들 모두가 능력자를 우월시 했으며 보다 강한 능력자를 믿고 따르는 근성이 뿌리 깊게 박혀있었다. 사용인이 모두 비능력자인 이유도 비능력자가 능력자를 위해 헌신하고 접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에서 였으나 주위에서 바라보기엔 비능력자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야말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완벽한 가문이었다.

가문의 능력을 이어받은 직·방계의 아이들은 5~7세가 되었을 때 가문의 모든 일원이 모인 장소에서 제 능력을 보이고 충성을 얻어야 했으며 이 시험에서 기준 미달이 된 아이들은 외부에서 가문의 이름을 떨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함과 동시에 직계였던 아이라도 방계로 쫓겨나거나 심지어는 아예 가문에서 퇴출당하기도 했다. 미천한 능력으로 버트랜드가문의 이름을 대는 것은 절대 용서 못 한다는 초대의 유연이자 가문의 지침때문이었다.

그리고 재클린 버트랜드는 이 시험을 아주 완벽히 통과한, 가문이 바라던 이상적인 가주의 능력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였다. 5살에서 6살로 넘어가는 생일 자정, 책은 시험에 응했고 아주 어린 나이임에도 세상의 모든 색을 합친 검은색을 제 손처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모습은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충성을 맹세 받기에 충분했다.

잭은 장래 유망한 후계자 후보로서 제 입지를 서서히 다져갔다. 누구에게나 친절한 미소, 부드러운 화법, 과하지 않은 자신감. 그리고 검은색을 다루는 아주 강력한 능력까지. 사람들은 어린 뒷모습을 바라보며 장성한 모습의 완벽한 가주를 상상하고 저도 모르게 무릎을 꿇고 평생의 충성을 맹세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후계자들이 전부 모여 콜로라도주의 저택에서 능력 활용 훈련을 받던 도중 능력 가용 범위를 훨씬 넘어선 훈련에 잭의 능력이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제어력을 잃은 능력은 저택에 존재하는 검은색을 모두 빨아들이고, 주위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폭발은 잭이 능력의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까지 지속되었는데 그 길고도 짧은 시간 동안 저택이 자랑하던 검은빛 외관은 빛을 잃은 흰색으로 바뀌었으며 당시 저택에 있던 모든 사용인들과 상대적으로 능력이 약했던 방계 후계자들 일부가 사망, 직·방계 후계자들의 중경상 그리고 잭의 왼쪽 눈과 머리카락 일부의 색을 잃게 되는 등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낸다.

가문에서는 이 사건을 시급히 처리해갔고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잭이 눈을 뜨고 제 몸 간수가 가능해졌을 때엔 이미 저택에서 벌어진 사건을 아는 이는 세간에 존재하지 않았다. 잭은 정신을 차린 즉시 가주에게 불려나갔고 심한 질타를 받게 되었다. 제 능력 하나 간수 못해서 가문에 먹칠을 해야 네 직성이 풀릴 거냐는,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대한 감정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가주는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모두 부족한 교육 때문이라며 잭의 주변인들을 강제로 교체한 뒤 그동안 해왔던 교육의 강도와 양을 몇 배로 늘려서 훈련하게 시켰다. 그 저택에 있던 사용인이 전부 사망하고 살아남은 이들까지 사건에 대해 함구하자 일에 대한 전모를 자세히 모르는 사용인들은 전보다 더욱 열심히 훈련을 받는 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보다 완벽한 후계자는 없을 거라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용인들과는 달리 직·방계의 일원들은 잭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다. 무결점이었던 유력 후보자가 드디어 약점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것도 웬만해선 감출 수 없는 아주 큰 약점을 말이다. 그러는 한편, 심해진 견제와 전보다 강해진 교육에 잭은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다. 선망의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사용인들도 쓰러지기만 하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물어뜯을 눈을 하고 양전한 척 가식을 떠는 일원들도 자신을 불량품 취급하는 가주도 모두 지긋지긋해지기 시작했다. 후계자가 자신으로 확정이 되자마자 런던으로 떠난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숨 막히는 저택에서, 저 가문에서 벗어나기 위한 그의 최선의 발버둥이었다. 아마도 자신이 후계자가 되지 않았어도 저택을 뛰쳐나왔을 것이라고 잭은 종종 생각하곤 했다.

가주 후계자가 된 잭이 런던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던 이유는 잭이 가주와 거래를 했기 때문이었다. 가주의 명령에 별다른 말없이 따르는 대신에 런던에서 혼자 생활하겠다는 내용의, 을쪽에서 내미는 노예 계약서였다. 점차 완벽하게 성장해가는 후계자를 제어할 목줄이 생기는 것을 가주가 거부할 리가 없었다.

잭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가주의 입장에서선 우월한 엘리트 가문인 저희가 작전에 참여해 자신들과 다른 능력자들의 차이를 보이고 싶은데 그렇다고 능력이 강한 중요 인원을 보내기엔 이 프로젝트는 누가 봐도 "죽으러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우연찮게, 가주의 손에는 잭의 목줄이 쥐어져있었다. 가문의 우월함을 보일 정도로 강력한 능력을 가졌으면서도 죽어도 그만, 죽지 않고 살아돌아와도 그만인 아주 완벽하고도 불안정한 장기말이었다.

가주는 즉시 잭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대외적인 명분으로는 세상의 평화와 가문의 보전. 잭에게 알린 명분은 극한상황에 몰린다면 네 허접한 능력 조절 실력이 성장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사실 전 세계를 통틀어봐도 잭의 능력 조절과 활용능력은 수준급이었다. 당시 일어났던 저택 사건은 어려서부터 이어진 강한 훈련과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에 불과했지만 그 누구도 이를 알아채지는 못했다.

능력 조절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던 잭은 가주의 의견에 동의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다. 물론 가주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서가 아니고 능력이 또다시 폭발하는 것에 두려워하며 평생을 살아갈 바엔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는, 매우 극단적이면서도 그야말로 "버트랜드 가문"에 어울리는 생각 때문이었다.

책의 완벽주의자 성향도 가문 탓이 컸다. 가문은 실패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책은 가문의 기대와 시기를 동시에 받고는 했다. 거기에 실수를 하자마자 쏟아지는 수많은 질타의 시선과 강도 높은 교육은 아이가 더욱 완벽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다.

이 비틀린 성향은 책이 런던에 건너가 정보상을 설립한 후에 가장 크게 두드러졌는데 설립 초기에 실패했던 의뢰들에 돈이든 사람이든 미친 듯이 투자를 해 그 의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차단해버린 것이었다. 혹여나 실패한 일들이 가문에 흘러들어간다면 거래고 뭐고 다시 저택으로 끌려갈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었다. 책은 필사적이었고 그만큼 병적이었다.

#### **[잊어서는 안 되는 기억]**

1. 화이트 저택 사건
2. 정보상 에보니
3. 버트랜드 가문

#### **[잊고 싶었던, 잊혀져야만 하는 기억]**

1. 가문에서 받았던 "교육"
2. 화이트 저택 사건
3. 에보니 설립 초기(당시에는 무명의 정보상이었다.), 실패했던 수많은 의뢰들

#### **[러닝 in]**

열차 내에서 얻게 되는 정보의 수집과 해석을 위주로 활동하고 싶습니다.

능력을 사용해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장소에서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인원을 갈라 이동할 때 능력으로 의사전달을 대신한다는 등의 역할도 괜찮습니다.

능력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없이 하얗기만 한 장소/물건에 강렬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손으로 주위 사람들을 해치는 것에 혐오감을 느끼며 타인을 희생시킬 바에 자신이 스스로 나서 희생하는 것을 더욱 선호합니다.

약간의 시선 공포증(10여 명 이상일 경우부터 증상 시작)이 있는 탓에 많은 사람들 앞에 나서려면 선글라스를 꼭 착용해야 하며 선글라스가 없는 상황이 온다면 공황장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상대의 색을 뺏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생물과 접촉할 때에는 장갑을 벗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생물을 만질 때에만 장갑을 벗는 편입니다.

러닝을 진행하면서 이런 트라우마나 비틀어진 생각의 교정이 일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죽을 땀 죽더라도 가문의 무게를 벗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성장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 **[인터뷰]**

**Q.**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총 책임자 아벨 화이트입니다. 본 프로젝트에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A. 반갑군요 아벨 화이트씨, 재클린 버트랜드라고 합니다. 본명보다는 잭이라는 이름을 더 자주 사용하니 되도록 잭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군요. (사내는 능숙하게 품 안에서 명함을 꺼내 건네며 웃었다. 새까만 렌즈 안쪽에서 곱게 접히는 눈꺼풀이 보였다.) -물론, 재클린이나 버트랜드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저 본명보다는 애칭으로 부르는 게 더 가깝게 느껴지니까 말이죠. 프로젝트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를 물었나요? ... 글썄요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지는 않군요. 능력자 가문으로서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할 뿐이죠. 저희의 능력은 세상의 평화와 가문의 보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마땅하니까요. 거기에 가문 내에서 가장 강한 능력자를 프로젝트에 투입시키는 것 또한 당연한 거죠. 아닌가요?

Q.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굳이 희생하란 말은 아니에요. 전 당신 버리고 떠날 거라서요.

A. 이런, 저와의 인터뷰 전에 누가 당신을 대신해 희생한다고 말을 꺼내기라도 했나요? 타인이 받을 피해를 대신 받아주는 일만큼 멍청한 짓은 없어요 아벨씨. (우스운 농담을 들었다는 듯 사내는 어깨를 들썩이며 웃다가 말을 덧붙였다. ...아, 그러고 보니 아벨씨라고 불러도 괜찮겠죠?) ... 흠, 만약 목숨이 위험해진다면 임무의 성공보단 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움직일 테죠. 아무리 이런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해도 누구에게나 목숨은 소중하니까요. -그래도 웬만하면 프로젝트를 포기하고 떠나진 않을 거예요. 의뢰의 실패는 신용도의 하락과 직결되고, 정보상은 신용도가 가장 중요하죠.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Q. 마음에 드네요.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끝까지 함께할 수 있겠습니까?

A. 방금 전에도 말했지 않나요? 정보상은 신용도가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저희 에보니는 창설되고 지금까지 업계 1위의 자리를 놓친 적이 없어요. 당연하지만, 의뢰에 실패한 적도 없죠. (유려한 몸짓으로 건넸던 명함을 다시 집어 들더니 빙글 뒤집어 뒤에 적혀있는 홍보문구를 거침없이 읽어내려갔다.) "당신이 그 무엇을 원하시든 모든 것을 이뤄드릴 수 있는 정보상, 에보니" 그런 정보상의 총책임자가 바로 저, 재클린 버트랜드- 잭이에요. 이 이상 더 설명할 게 남았나요? (사내는 다시 정중한 태도로 명함을 건네며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었다.)



???? ?

정보상의 손님.

관찰은 검술스승을 알려달라는 의뢰에 "올리케 헤르만"을 소개시켜 줬다.  
최근에 개인적인 의뢰를 하나 더 맡겨 현재 조사중이지만 아도 역시 완벽하게 성공할테지.

"저희 에보니를 잊지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해요, 오펠리아씨. 앞으로도 당신의 성의에  
보답하도록 노력하죠."



아벨 화이트

견제관계.

서로의 뒤를 캐면서도 굳이 숨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대놓고 말하고 있다.  
'내 정보력이 이정도인데 말이지~'같은 느낌일까?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티내지않고  
예의바르게 간족거리는 중.  
첫 만남은 아벨의 조카에게 대뜸 시비를 걸렀을 때 었다. 상황파악도중에 아벨이 들어와  
조카를 데리고 사라졌지만 잠깐 받은 견제의 눈빛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는 모양.

"아하... 그러고보니 아벨씨, 이번에 또 재밌는 일을 벌이셨더라고요.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거들어 드릴 수도 있는데 말이죠?"



??? ???

비즈니스적 공생관계.

~~토우야가 현타일을 할 때 예보니로 정보를 사러오기도 하지만 잭쪽에서 누굴 좀 찾아달라는  
등의 의뢰를 맡기기도 하는 모양.~~

~~현타와 정보상이라는 서로의 엄중 상 상성이 좋은 편. 잭쪽에서는 관참은 용병이라는  
아마자.~~

~~"그럼 이번 의뢰는 이렇게 끝내도록 하죠. -아, 칸자키씨. 일 하니 해보지 않을까요?  
이번엔 제 쪽에서의 의뢰예요."~~



첼레스테 에커

정보상의 손님.

최근의 물가시세나 돈 많은 ~~후구~~손님을 알아봐주는 등의 의뢰를 받고 있다.  
종종 의뢰비대신 약(!)을 받기도 하며 길에서 만나면 서비스의 일종으로 최신 정보를 던지시  
알려주기도 하는 모양.

베네치아에 가면 첼레스테의 곤돌라를 이용하기로 했다.  
(잭이 이용할 때에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였지만 딱히 지켜질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오랜만인걸요 첼레스테씨~ 아, 요즘 웹블리쪽에서 약이 유행중이래요. 그래서 값이  
2배로 올랐단나?"



칸 본다르추크

정보상의 단골손님.

주로 뒷골목 일거리나 의뢰 정보를 거래했다.  
정보비라는 명목으로 대뜸 가방에 큰 돈을 넣어서 주는 탓에 꽤 골머리를 앓았었으나  
현재는 의뢰 n번의 대금을 한번에 낸다는 느낌으로 처리하는 모양이다.

잭 입장에서는 금전감각은 (많이) 부족하지만 괜찮은 손님이라는 느낌.

"이정도면 의뢰 3번은 거뜬하겠는 걸요 칸씨. 그래서 이번 의뢰는 무슨 내용인가요?"



디에고 오르델라피

정보상의 고급(!) 단골손님.  
사람에 대한 정보를 팔거나 디에고의 임무의뢰를 맡았다.  
의뢰 성공률 100%, 만족률 100%답게 비즈니스적 신뢰가 꽤 높다.  
종종 의뢰대금대신 마피아쪽의 근황을 듣기도 하는 모양.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이 익숙해진 나머지 가끔 안전이 보장된 프라이빗룸 등에서 술자리를  
가지며 정보를 주고받기도 한다.  
단골이니만큼 꽤 친한 모양.

"이번 정보교환은 제가 아는 술집에서 하죠. 거기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어때요,  
디에고씨?"



라 디타 L.버로렌

정보상의 손님.

5년전에 의뢰를 맡은 적이 있으며 최근에 또다른 의뢰를 맡았다. 특이하게도 둘 모두 사람을 찾는 의뢰였다고.

라와 잭 모두 기억력이 비상한 탓에 서로를 명확히 기억하고는 있으나 의뢰자와 정보상 그 이상의 관계는 아닌 완벽한 비즈니스적 관계인듯.  
물론 잭의 성격상 남들이 둘을 보면 지인인 줄 알겠지만.

"오랜만이네요 라씨. 부탁하신 의뢰는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어요. 조만간 이쪽에서 연락을 드릴지도 모르겠네요~"



베아트리스

탐나는 인재.

정보상을 운영하다가 베아트리스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얻게 된 잭은 곧바로 그녀를 찾아가 스카우트를 제안했지만 단칼에 차였다.

거절을 당하긴 했지만 텅빈 눈도 신경쓰이고 아무래도 능력이 너무 탐나서(!!!) 일단 친해지자고 결정. 베아트리스의 주위를 맴돌고있다. (스토커같겠지만 아니다.) 그탓에 종종 베아트리스에게 환멸의 눈빛( )을 받기도 하는 모양이지만 곳곳하게 스카우팅 노력 중. 곧세어라 재클린! 할수... 있을지없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되겠지 재클린!

"베아트리스씨, 점심은 먹었나요? 저기에 맛있는 샌드위치집이 있는데, 정보상 들어올래요?"



?? ???

자인겸 팬(!)

에던버러 인질극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다에에게 흥미가 생겨 접근했었다. 그러던 중 다에의 공연을 관람하게 되었고 그 우아하고도 완벽한 공연에 인간적 호의가 생겨 꽃이나 선물을 보내기 시작. 현재는 편하게 말을 주고받는 관계로 좋은 지인으로 발전해나가는 중이다.

"다에씨 이번 공연도 완벽했어요. 당신의 공연은 언제나 우아한걸요."



엘리언 달링

친한 지인.

에보니 설립 초기 시절, 엘리언의 바, 별이 빛나는 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찾아가 도움을 달라고 말했다.

미친놈 취급하고 쫓아낼만도 했지만 고맙게도 고객들을 알선해준 상냥한 엘리언 당신은 도덕책!

종종 엘리언의 바에 찾아가 술을 마시기도 한다. 단골손님이라기보다는 친한 지인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고.

답례에 연연하지 않는 엘리언의 성격을 알고 책의 지인들에게 바를 소개시켜주거나 괜찮은 거래처를 알아봐 주는 식으로 답례를 갚고 있다.

"오랜만이에요 엘리언씨. 요즘 바 근황은 어때요? 새로운 거래처가 찾아오지 않았나요?"